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김한모.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김병준.바오로 217-352-2487
 본당부제:김상돈.도밍고 916-580-8519
 사목회장:이주순.율리오 530-906-0262
 연례회장:고원석.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916-368-9204 Fax: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사도행전 4:32-35	제2독서	요한1서 5:1-6	복음	요한 20:19-31
--------	------	--------------	------	------------	----	-------------

◎말씀 < 이 복음서를 쓴 목적 (요한20,31 참조)>

오늘 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문을 걸어놓고 움츠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시어 용기와 희망을 북돋워 주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요한 20,21-22) 그리고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던 토마스는 다른 제자들의 예수님 부활 체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접 보고 만져야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은 처음의 인사와 같은 인사말을 하고 토마스에게 확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제야 토마스는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이라고 신앙고백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요한 20,26-29 참조)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그 말씀 뒤에 이 책을 쓴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서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 20,30-31) 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왜

예수님 보다 돈을 더 중요시 하는 것일까요?(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토마스과 같은 불신앙에 젖어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인간의 나약한 마음과 그 마음에 파고드는 불안과 유혹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서 저자는 이러한 사람들의 나약함, 토마스과 같은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믿음에 대해 이 책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표징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요. 개신교 신앙인이었던 장로출신 전직 대통령, 또 가톨릭, 개신교, 불교에서 세례와 수계를 받았고 샤머니즘에도 일가견이 있었던 범 종교인인 전직 대통령... 그들은 돈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아야하거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돈 때문에 벌어진 사단입니다. 돈이 잠시의 행복과 만족을 줄 수는 있겠지만,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돈을 추구하면서 죽음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신 길, 사랑과 나눔, 성김의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누릴 것이냐? 교회는 참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 봉사자가 되어야 하고, 신앙인은 스스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일 자	전 레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4월 10일(화)	부활 제2주간 화요일	오후7시30분	교 무 금 주일헌금	\$ 2,365.00 \$ 2,242.00
4월 11일(수)	성 스타니슬라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	오전7시30분	성목요일 성지복구	\$ 580.00 \$ 469.00
4월 12일(목)	부활 제2주간 목요일	오후7시30분	성 물 방 성소/사회복지	\$ 40.00 \$ 305.00
4월 13일(금)	부활 제2주간 금요일	오후7시30분	기타수입 한글학교	\$ 650.00 \$ 500.00
4월 14일(토)	부활 제2주간 토요일	오후7시30분	사제관건축 합 계	\$ 500.00 \$ 7,651.00
4월 15일(일)	부활 제3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아동: 55명 성인:495명

교무금봉헌자 류정임(10-4월)이수동(3-4월)한승훈.최원숙(2-3월)박선경(1-3월)김종순(5월)엄영자(2월)신영후.전정옥(7월)김규철.윤재경.김병길.구준모.남필레.안강순.박병수.김병준.박용호.장신자(4월)

◎신앙생활(본당의 새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집.동네의 샘입니다)

고백기도를 바치면서 가슴을 ‘세 번’ 치는 이유는?

“하느님, 당신 자애에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의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시편 51, 3)

시편 51편은 구약의 위대한 성왕(聖王)이라 불리는 다윗이 큰 죄를 짓고 고백하는 참회의 내용을 시로 담고 있습니다. 미사의 시작 예식에서도 사제와 신자들은 공동으로 죄를 참회하는 고백기도를 바칩니다. 사제가 먼저 “전능하신 하느님과” 라고 운을 띄우면 교우들이 뒤따라서 같이 합송하는 형식입니다. 이때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가슴을 세 번 칩니다. 가슴을 ‘세 번’ 치는 뜻은 우리가 세 가지로 즉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 자녀로서 의무를 저버린 것을 후회하고 아파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죄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부당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죄스러움을 진정으로 시인하는 것은 용서와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가슴을 치는 행위는 “주님, 가련한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는 그리스도인의 겸허한 기도의 기본자세를 나타냅니다.

소죄(小罪)의 경우 이 참회예식을 통해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독서와 복음을 들으면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살겠다고 다짐하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대죄(大罪 : 십계명을 어긴 죄)의 경우에는 고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고백 기도는 내용상 두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즉 하느님과 모든 성인과 천사들에게 죄를 고백하는 부분과 성인들과 천사들에게 전구를 청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고해성사

를 받기에 앞서 진정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하며 고백기도를 바칩니다. 그리스도교에서 ‘3’ 이라는 숫자는 삼위일체 교리에서 보듯이 완전함,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미사 때 고백기도를 드리면서 가슴을 세 번 치는 뜻은 완전한 뉘우침, 완전한 통회의 의미를 표현합니다. 이때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통회하면 소소한 잘못들은 주님의 크신 자비로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죄의 용서가 선포됩니다.” (사도 13,38)

†.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 윤안나/원정은. 카타리나/성낙순. 안나 백정심. 막달레나/전기례. 베레나/김나미. 로사 김옥륜. 세실리아/추소연. 세실리아/엄안드레아 김숙자. 수산나/서향자. 글라라/김초지. 마리아 황순이. 마리아/최이주. 베아따/이규청. 제노비아 신용경. 그레고리오/엄모니카/배미성. 오틸리아 박모란. 글라라/김광진. 요한/원헤리나. 헬레나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 박울리아. 916-990-6531/박프란치스코. 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한오임.소피아의 영혼	익명	생	한오임.소피아 선종때 도움주신 모든 교우들의 영육간 건강	연령회
연	(기일)윤종하. 요셉의 영혼	윤재경. 알베르도			
연	문영의 부부의 영혼	윤재경. 알베르도			

간
장
종
지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김의규 가브리엘. 화가)



(광고) 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신세계여행사 148 Grand Ave.Oakland, CA 94612 Raymond(베로니카) (510)451-7487 688-0157</p>	<p>Kim' s Pro Handymen 주택수리일체.무료견적 수리비용 절감 5810 Shadow Creek Rd. Sacramento CA,95841 김광열 (510)789-7876 kimkwangyeo152@gmail.com</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cell</p>	<p>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율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	--	---	---

<p>SNOW WHITE DENTAL 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한국어</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p>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 2335 American River Dr. Ste.100 Sacramento, CA 95825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	--	--	--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p>1.2.3 Auto Body정비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JIMMY KIM GOLF SCHOOL ~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916)605-6974</p>
--	---	---

<p>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Bad Credit? Call For Free Credit Titan Credit 1911 Douglas Blvd. Suite 85-416 Roseville CA 95661 Larry Chiarella,Esq (916)709-7777 rarry@titancredit.com</p>	<p>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	--	---	--

--	--	--	--

